제2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경북 청송의 군민운동장에 총24개팀 참여
종합우승에 경주의 안강청년회

▲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안동권씨의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 대회에서 권병섭 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권정달 대종회장 겸 중앙종친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4월 25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서 안동권씨의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열렸다. '도약하는 백만 권문! 세계속의 주역으로! 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그 22번째를 맞는 안동권씨의 전국 체전으로서, 벽지의 군읍 소재지에 있는 청송청장년회가 획기적인 기획으로 주관하여 성사시킨 쾌거의 하나로 평가되면서, 청송읍내 시가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용전천변의 청송군민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역 청장년회 2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의 팡파레를 울렸다.

오전 10시가 개막 예정 시각이었으나 먼 지역에서 출발하여 다소 늦게 도착하는 참가팀까지를 가다리는 동안 식전 행사로서 주최측 청송청장년회가 준비한 에어로빅 댄스와 고적대의 화사한 공연이 한껏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윽고 각지역 24개 참가팀 선수단이 도착하기를 완료하자 오전 11시에 가나다순에 따른 각지역 선수단의 입장식이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졌다.

30여분에 걸친 개막식 퍼포먼스를 마치자 권태순 대회 부회장이 연단에 올라 개회를 선언하고, 권병섭 청송청장년회장이 전국청장년체육대회장으로서 연단에 나와 내빈을 소개하고, 지난 해 제23회 체전의 개최지인 강원도 강릉청년회의 권혁기 회장과 권기동 준비위원장, 권순근 사무국장, 권순상 재정국장에게 각기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권정달 대종회장 겸 중앙종친회장이 권오영 청송종친회장에게 이번 체전을 준비, 후원한 데 대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권병섭 대회장의 대회사, 권오영 청송종친회장의 환영사가 있고, 권정달 대종회·중앙종친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청송지역구의 정해걸 국회의원이 나와 축사를 하였다.

전차 대회 우승자인 경주청장년회의 우승기가 반납되고 권영철·권영미씨가 나와 전체 선수단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식전 행사를 마치고는 곧 경기가 개시되었는데 24개팀을 조별로 나눈 대진표에 따라 족구足球, 400m계주와 윷놀이·단체줄넘기 등을 주종목으로 하여 각자가 나름의 힘을 쏟는 경합을 두세 곳으로 나뉜 경기 마당에서 다발로 벌였다.

한편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는 본부석 아래에 딸린 구조건물의 일실에서 전국청장년연합회 회장단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청년회장단 회의에는 현 국회 사무총장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격려의 인사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안동권씨의 체전이 평양과 개성에서도 열리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는 소감과 함께 이러한 안동권씨의 축제가 나아가 우리나라의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1년 임기의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연합의 회장이기도 한 권병섭 청송청장년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경과보고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서 2개월 전부터 제반 준비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고 이것저것 주선해나왔다. 그동안 날씨가 좋아 한 덕을 보았고 청송 관내에 거주하는 안동권문 62제대가 결속이 잘되어 오늘 이 큰일을 이만큼이나마 치르게 되었다'고 자평하였다. 권병섭 대회장이 의장이 되어 각지역 청년회장과 임원을 소개하고 회의를 주재하여 청장년회연합의 현안과 내년도 체전의 개최와 관련된 문제의 토의에 들어갔다. 오는 2013년 체전의 개최지는 사실 개최 3년 전에 결정하여 확정을 했어야 할 사안인데 미정인 상태였다. 그러나 막상 2013년도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는 희망지가 영주와 대구 양지역에서 나와 경합되어 토론한 결과 영주에서 개최하기로 낙착이 되었다.

체전장에서 청송청장년회는 또한 '청송특산물코너'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배려도 빼놓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대회의 부대 행사로 '어르신 모시기, 장기 자랑, 경품추첨' 등에 이은 별도의 축하공연도 마련하여 흥겨운 여흥을 통한 일문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기울인 노력이 전반적으로 돋보였다.

하루 일정의 제전을 마친 결과 대회의 종합 우승은 경주의 역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안강청장년회에서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강원도의 원주청장년회에 돌아갔다. 3위는 영천청장년회에 돌아가고, 응원상은 제천청장년회가, 입장상은 울산청장년회가 받았다.

<사진·글 權奇允>

▲ 전국청장년회장단 회의에서 권오을 국회 사무처장이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북 충주종친회 제35차 정기총회

정관 개정하고 분회장제 도입해 종회 활성화

▲ 충주종친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안동권씨 종친회가 5월 14일 오전 10시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식당 '궁전뷔페' 연회장에서 2010년도 제35차를 맞는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세오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의례를 행하고, 이어 권영운權寧運 종친회장이 먼저 권영관權寧觀·권오만權五萬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영관 전 회장은 신환으로 참석치 못하고 있었다. 이어 종친회에서 윤리도덕심 함양을 위해 매월 21일에 모이는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금년부터 행하기로 한 효행 표창으로 충주시 호암동에 사는 김옥환 여사에게 '효부표창패'가 수여되었다. 김옥환 수상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영운 회장은, 권오만 5대 회장 및 전 교육장 권순무 충주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창 농촌이 각종의 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외 족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부디 이러한 자리가 일가간에 삶의 지혜를 나누며 화목을 도모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한다'는 개회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충주종친회의 종시宗是를 상기시키며 숭조 정신의 함양과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해 오고 있는 선대 유적지 참배순례의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종친회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숭조이념과 애족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지속한다. 지난해에도 권순무 장학회 이사장과 권오만 시원소주 지점장이 예년과 같이 전세 버스를 제공하고, 권오협 충주농협조합장이 또한 예년과 같이 타월 등을 비롯한 준비물 일체를, 권성오 정관장 건수지점장 등 여러 족친이 협찬하여 경기장단의 추밀공 단소에 참배를 다녀왔다. 그 외에 음성의 양촌 문충공 향사와 총재공 이하

3면으로 계속